

노지감귤 호조세... 이달에도 이어질 듯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월 과일관측 보고서
품질 향상·수요 증가 영향 가격 상승 전망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의 호조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의 '농업관측(과일) 12월호'에 따르면 11월 가락시장 기준 노지감귤 도매가격(상품)은 5kg에 1만6500원 수준으로, 전년 대비 1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새 부진으로 지연된 물량이 출하되며 반입량은 늘었지만 품질 향상과 대체과일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10월에 이어 가격 오름세가 유지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흐름은 12월에도 이어져 이달 가락시장 기준 노지감귤 도매가격(상품/5kg)은 전년(1만7200원)보다 오른 1만8000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 따르면 3일 현재 전국 9대 도매시장의 노지온주 평균 경락가격은 5kg에 1만3500원으로, 작년(1만3300

원)에 비해 약 2%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올해산 노지온주 누계 가격은 1만2580원으로 2024년산(1만1329원)과 2023년산(1만740원)에 견줘 각각 약 11%·17%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40만2000t 내외로 전망했다. 또 생산량 증가와 일부 착색 지연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12월 노지감귤 출하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하고, 내년 1월 출하량은 4.6%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2026년 감귤 재배면적은 전

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온주감귤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1만5054ha로, 이 가운데 노지감귤(1만3664ha)은 농가 고령화 등에 따른 폐원과 만감류 전환 등으로 전년보다 1.2% 줄고, 월동(비가림)감귤(922ha)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하우스감귤과 만감류 전환이 늘어 전년 대비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하우스감귤(468ha)은 전년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만감류(4321ha)도 전년 대비 0.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오은지기자



제주시농협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이마트에서 제주산 농산물 통합 판촉행사 'Hello Jeju! Be Mesmerized by Jeju!'를 진행한다.

몽골 시장 공략... 제주시농협, 통합 판촉
몽골 이마트서 감귤·키위·월동무 동시 홍보

제주시농협이 자체 수출 브랜드 '제즈머라이즈(Jesmerize)'를 앞세워 감귤·키위·월동무를 한 자리에서 선보이며 몽골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제주시농협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 이마트에서 제주산 농산물 통합 판촉행사 'Hello Jeju! Be Mesmerized by Jeju!'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 대표 수출 농산물 3종인 감귤과 키위, 월동무를 한국과 제주를 모티브로 꾸민 전용 부스에 나란히 진열하고, 시식 행사와 각종 이벤트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이번 통합 프로모션은 지난달 12일 제주시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열린 '제주산 대표 농산물

몽골 수출 선적 행사'의 후속 조치다. 선적식 이후 제주시농협과 관계사는 11월 22일 몽골로 감귤 17t, 샤인키위 0.5t, 월동무 0.4t를 추가 수출했다. 제주시농협은 올해산 감귤 100t, 키위 10t, 월동무 3t(시험수출)을 수출 목표로 잡고 있다.
고봉주 제주시농협 조합장은 "이번 수출 및 현지 프로모션 프로젝트는 몽골 현지 소비자들에게 제주산 농산물을 제즈머라이즈 브랜드가 대중화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감귤과 키위, 채소류 등 제주산 농산물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어 마케팅하는 제주시농협만의 차별화된 수출 전략으로 제주산 농산물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관
18일까지 사전 수요조사

제주시는 내년 상반기 '농특산물 직거래 온라인 통합 홍보관' 구축을 앞두고 참여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이달 18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 수요조사는 홍보관의 실효성 있는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분야별·업체별 참여 의향, 상품 특성,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등을 조사해 향후 운영 방식, 지원 체계, 협력 구조 등을 구체화하는 데 핵심 지표로 삼을 방침이다.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 홍보관은 디지털 홍보, 온라인 판로 연계, 지역 로컬 브랜드 가치 제고를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농산물우수관리(GAP)·친환경 인증 등 시책 사업을 통해 인증받은 농업인과 6차산업 인증 경제체, 전통주·전통식품 인증업체 등 다양한 로컬 생산자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통합 플랫폼'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제주시 누리집이나 감귤유통과(728-3342)로 방문 신청하며 된다. 문미숙기자



무 수확하는 농민들 3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에서 농민들이 무 수확작업에 분주한 모습이다. 강희만기자

제주 겨울, 취향대로 즐긴다
제주관광공사, 7가지 테마 여행 제안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겨울철 여행 트렌드와 관광객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농치지 말아야 할 겨울 제주 관광 콘텐츠로 '나만의 방식으로 즐기는, 제주의 겨울'을 3일 발표했다.
이번 콘텐츠는 올 한 해 계절별로 선보인 '제주, 당신의 취향을 답다' 시리즈의 겨울편으로, 여행자의 취향에 따라 제주의 겨울을 즐길 수 있게 제안한다.
공사가 제시한 올 겨울 제주 취향 여행은 ▷문화여행자(제주 역사·문화 관람선호) ▷웰니스선호자(겨울 차(茶), 스파 웰니스 활동선호) ▷자연선호자(겨울 동백, 한라산 눈꽃 계절 자연 선호) ▷쇼핑트레블러(지역 하나로마트 로컬 쇼핑 경험 추구) ▷미식탐방자(겨울 제철음식, 휴게소 음식 선

호) ▷어드벤처추구자(겨울 하이킹, 해양 체험 추구) ▷매력탐방자(지역로컬 마을 탐방 추구) 등 7가지다.
공사 관계자는 "겨울철에만 즐길 수 있는 취향 기반 여행 콘텐츠를 통해 자연과 마을 구석구석을 천천히 경험하며 제주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구성했다"라며 "관광객들이 자신만의 속도로 제주에 머물고 기록하며, 겨울 제주 관광과 함께 제주만의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먹깨비 vs 땡겨요’ 배달앱 갈등 공정위 조사

공공 배달앱 운영업체 먹깨비와 신한은행의 갈등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번졌다.
3일 공정위가 먹깨비에 회신한 문서와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신한은행이 먹깨비를 상대로 부당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사전 심사를 마치고 최근 사건번호를 부여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먹깨비는 자사 핵심 기술 및 지자체의 협력 구상 등을 신한은행이 입수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유사한 '땡겨요'를 내놓았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한은행이 먹깨비의 투자와 기술개발을 허사로 만들었으며 시중은행의 지위를 내세워 소비자가 타사 결제 수단을 쓰지 않게 하는 등 경쟁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했다는 것이 먹깨비 측의 주장이다.
이에 신한은행은 "땡겨요는 신한은행의 독자적 기술력과 자본·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개발된 플랫폼이며, 먹깨비의 기술을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론했다.
공정위는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위법 행위 여부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씨니트묘목분양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한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점순 나눈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감귤 신품종 분양

2026년 공급분 품종안내

만감류

우리향, 달코미, 맛나봉, 레드스타, 설향, 미래향, 사라향, 한라봉, 아나마스, 레몬, 탐나는봉

온 주

궁천, 하례조생, 고림, 오하라베니

농장 임대료로 특별 분양
유라, 레드향, 카라향
3년생 분당 10,000원 100% 이식묘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요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하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나로 ● 제라논

※ 포트묘목

생존률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하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강정종묘
종남농장

신품종
우량묘
포트묘

제18-서귀포-2019-20-03

국립종자원에 생산, 판매신고가 된 믿을 수 있는 공식업체

국내육성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완료

다양한 년수 포트묘 보유중

등록품종

한라봉,천혜향,
황금향,카라향,레드향,
하굴,유라조생,레몬.

신품종

달코미,우리향,미래향,
설향,맛나봉,레드스타,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이터도로 530
(사무실)

주문전화
010.3696.1614